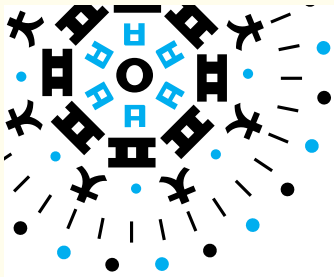


# 한글로

## 세상의 아름다움

- 2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4 한글날 기획 한글과 함께한 분들의 삶과 업적
- 5 한글날 기획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 6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 8 현장에서 만난 국어 선생님
- 9 지명, 알고 보니
- 10 안녕! 우리말
- 12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 15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568돌 한글날을 맞아 많은 분께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민현식 국립국어원장님, 이삼형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공동 대표님께서 한글날 축하 글을 보내 주셨고, 국회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현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이에리사 의원님과 뮤지컬 배우 정성화, 개그맨 김준호, 탤런트 오재무 씨도 축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 문화방송 신동호, 한국방송 임수민 아나운서께서도 축하를 보내 주셨습니다.



## 한글날의 주인공은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오백예순여덟 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축하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더구나 올해 한글날은 오랜 준비 끝에 한글날에 맞춰 국민 앞에 한글박물관을 선보이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고 큼니다. 한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한글박물관은 앞으로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돌아볼 때 소통과 화합의 언어, 쉬우면서도 품격과 배려를 갖춘 언어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갈등의 언어, 서로 이해하지 않는 배척의 언어가 만연해 있어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이 우리 문화의 토대이자 문화융성의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문화의 한 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 전 구성원이 원활히 소통하고, 개인과 사회가 치유되며,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고품격 언어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가정, 학교, 방송·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언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지난해 규범 중심의 순화나 정화 운동 차원을 넘어, 우리말과 글의 맛과 멋, 감성과 창조적 상상력까지 복돋우는 즐거운 언어문화운동입니다.

세종의 이상은 문화가 융성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는 한글이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온 백성이 언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애민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꿈꾸는 문화융성을 이루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세종의 철학을 거울삼아 거듭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568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기득권층인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인본주의 철학이 존경스럽습니다. 말과 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서 숭선수범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두 깊이 성찰해보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68돌을 맞은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그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많은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글은 우리 문화의 근간이자 사회적 소통을 이끌어 내는 힘이며, 저와 같은 시인에게는 삶의 근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한글이 우리 문화 안에서 바로 섬으로써 진정한 연대와 소통, 언어의 품격과 사유의 품격을 갖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국회의원

568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포츠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글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글박물관 개관과 함께 우리말과 글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바라며,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소통하도록 하였듯이 시청각 장애인들도 모두 한글날을 맞이하여 차별 없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정성화** 뮤지컬 배우  
568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방송된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식 축하 무대에서 다른 뮤지컬 배우들과 우리말로 '만나면'을 열창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의 토종 뮤지컬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말로 공연될 날을 고대합니다.



**김준호**  
개그맨,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홍보대사 (우리말 수호천사)

한글은 백성들이 두루 쉽게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코미디도 아름다운 한글과 함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568돌 한글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재무**  
탤런트, 영화배우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홍보대사 (우리말 수호천사)

568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한글 덕분이니 한글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말 수호천사로서 우수한 한글을 지켜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 으뜸 한글로 으뜸 한국 이루어야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세계는 한국이 성장한 비밀을 높은 교육열, 근면한 국민성과 한글에서 찾습니다. 전 세계 6천여 언어에 주요 문자는 20여 개에 불과한데 한국어는 13위권의 대국언어이고 한글은 10대 문자로 거론되어 알파벳, 한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글을 천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어 말살의 위기로 문맹률 90%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해 문맹자가 사라지고 이제는 국민 80%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습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해 10대 무역대국이 되었고 5천만 인구가 2만 달러 국민소득을 이룬 7개국에 들게 되었는데 이런 한강의 기적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적의 한글 덕분이기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한글을 목숨처럼 지키다 돌아가신 주시경 선생 및 조선어학회 순국선열께 감사해야겠습니다.

6천만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들의 언어를 국제어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8천만 한민족의 한국어가 한글의 날개를 달고 10대 국제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기초는 존중과 배려의 언어예절, 청정과 실득의 토론 문화이므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부터 이런 언어문화를 회복하고 한국어를 21세기의 국제통용어로 만들도록 우리말과 글을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온 국민이 함께 다짐하는 한글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수민** 한국방송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568돌 한글날,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데 말과 글만 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한국방송 아나운서들은 표준한국어를 보급하고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백만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세계인의 언어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운 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568돌 한글날, 축하합니다.



**이삼형**  
한국어문화재단연합회 공동 대표  
한양대 교수

우리는 해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시리도록 예쁜 시기에 한글날을 맞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리말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퍼신 세종대왕의 뜻이 가을 하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니 한글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거리의 간판에서 우리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한탄을 들은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 구호에도 우리말인지 의심이 갈 정도의 구호가 넘쳐납니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경 선생 서거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 한글날에 선생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 568돌 한글날을 맞은 올해는 진정으로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물결처럼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호**  
문화방송 아나운서국 국장

568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글날은 다른 공휴일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말과 글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한글날 즈음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아끼고 즐겨 쓰면 좋겠습니다.

# 한글날 기획 한글과 함께한 분들의 삶과 업적

올해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과 최현배 선생 탄생 120돌을 맞아 두 분의 삶과 업적에 대해 되새기고자 합니다.

## 주시경 선생의 지극한 우리 말글 사랑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한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우 서른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는 것을 \*자가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주시경 선생 묘비명에서) \*자가: ‘자기를 예스럽게 조금 높여 이르는 말

이렇듯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은 1876년에 태어나 1914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 올해가 바로 돌아가신 지 100돌이 되는 해이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이러한 저서에서 그는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우리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은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평생을 일관되게 지닌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 연구를 언어과학으로 승화시킨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국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꽃피우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주시경 선생이 처음 우리말을 연구하게 된 것은, 우리말 표기법을 바로잡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의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문법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실 발음대로 적되, 형태음소적으로 분철 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원리는 그대로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이를 근본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을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 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에서 비롯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국어정책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선생이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문화사에, 민족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오늘날 올바른 말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주시경 선생의 어록비에 담긴 다음 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지극한 우리말 우리글 사랑 정신을 다시금 깨우쳐야 할 것이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주시경(1876. 11. 7. ~ 1914. 7. 27.)

## 우리 어문생활의 초석을 놓은 외솔 최현배

남기심 고려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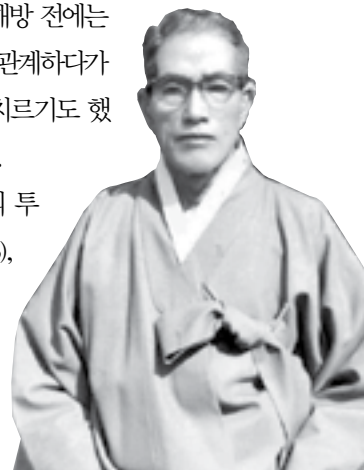
언어는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이다. 원활한 언어 소통, 바르고 정확한 언어 표현력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통치를 받는 동안 우리 국어는 일본어요, 우리말은 조선어일 뿐이었다. 우리는 모국어를 잃음으로써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민족적 유대가 끊어질 뻔했다. 해방되어 우리말이 국어로서 지위를 되찾고, 우리말로 교육했으나 국어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국민 태반이 한글조차 읽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를 정비하고, 우리말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국어를 교육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시급히 필요했던 국어 교사를 길러내 국어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한편, 한글만 쓰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 외솔 최현배 선생이다.

최현배 선생은 국어학자로서 《우리말본》(1937), 《한글갈》(1941) 같은 국어 연구 사상 획기적인 업적을 냈다. 오늘날 국어 문법은 《우리말본》을 바탕으로

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바로 이 문법 체계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큰사전》 역시 최현배 선생의 문법 체계를 수용해 편찬했다. 누구보다도 크고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낸 학자이자 교수이며 학술원 종신회원으로 추대되기까지 한 최현배 선생은 상아탑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해방 전에는 민중 계몽과 독립구국 의식 고취 단체인 ‘홍업구락부’에 관계하다가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을 잃었고, 조선어학회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정부에 들어가 어문교육의 기초를 세웠다.

최현배 선생은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1951), 《한글의 투쟁》(1954), 《나라사랑의 길》(1958), 《나라 건지는 교육》(1963), 《한글만 쓰기》(1970) 등의 저서를 내면서, 한글 전용, 우리말 다듬기, 국어교육 등에 관한 주장을 펴서 국어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현배 선생을 존경받는 국어학자이자 국어 교육자, 국어 운동가로 꼽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현배(1894. 10. 19. ~ 1970. 3. 23.)

## 한글날 기획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 올해의 한글 발전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진흥과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한글 발전 유공자로 포상하였다. 그 가운데 개인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한다.

#### 금관문화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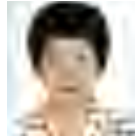
**호머 헐버트(미국)**  
언어학자이자 사학자  
호머 헐버트 박사는 한글 암흑기인 189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저술, 한글 사용을 강력히 주창하며 한글 범용의 지평을 열고,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 맞춤법 제정, 국문연구소 설치에 기여하는 등 한글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섰다. 한글을 통한 국민교육을 확장해 한민족의 문명 진화를 꿈꾼 개화기 한글과 교육 발전의 선구자이다.

#### 보관문화훈장



**홍윤표(대한민국)**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홍윤표 위원장은 한국어 학계에 많은 연구자를 배출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근대 국어 문헌을 연구해 국어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서평·논평·대담·수필을 다수 발표하였다. 한글박물관의 연구, 전시, 자료 수집 등 핵심 기능에 전문적 식견을 제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 및 대중과 소통하는 한글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문화포장



**이 스베틀라나(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사  
이 스베틀라나 선생은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육의 불모지였던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하였다. 한국교육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자원 봉사자로서 한국어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전파한 산증인이다.

#### 문화포장



**박동인(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첨단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동인 책임연구원은 한글 자판과 코드 표준화를 시작으로 한글 워드 프로세서와 한글 점자 출력 장치, 한글 글꼴 등을 개발·보급하여 열악한 컴퓨터 환경에서 한글 사용의 기반을 다졌으며, 국어공학센터와 21세기세종계획 사업으로 한국어 정보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우리말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 문화포장



**성기영(대한민국)**  
한국방송 아나운서실 전 한국어연구부장  
성기영 전 한국어연구부장은 음성언어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바른 우리말을 전파해 왔으며, 국내외 각종 기관에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우리말 순화에 기여하였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등을 기획·추진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국민 언어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대통령 표창



**허경무(대한민국)**  
사단법인 한국서체연구회 이사장  
허경무 이사장은 40년간 한글 서체를 정립하기 위해 서예이론가로서, 교육자로서, 서예단체 대표로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한글문화 행사를 12년간 펼치며 대한민국국새 제작위원, 문화재청 광화문 현판 주제 발표, 부산한글학회 회장, 한글학회 한글서체연구회장으로 한글의 세계화에 진력하고 있다.

#### 대통령 표창



**미리암 뢰벤슈타이노바(체코공화국)**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  
미리암 뢰벤슈타이노바 교수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체코공화국에서 한국학자가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체코인과 한국인이 서로 지식을 나누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학 연구에 주력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



**왕단(중국)**  
베이징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부 교수  
왕단 교수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국어학 관련 연구 성과를 풍성하게 거두었다. 중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어 연구, 교육,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체로는 '동명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한국어 교사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2014년 세종문화상 수상자

##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어요

인터뷰·글 권창섭 아주대학교 강사

**권창섭**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국어학 발전에 힘써 온 공로로 올해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익섭** 고맙습니다. 요즘 사전을 만들려고 강릉 사투리를 조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강릉에 가서 조사하는데요. 처음에는 5년 뒤쯤 사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많아서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창섭** 작업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이익섭** 좋은 제보자를 구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강릉 말은 성조와 음장이 모두 있고 독특해서 젊은 사람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 그래서 혼자 작업하려니 속도가 더디기는 합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어원 원장을 지내시고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도 관여하셨는데요. 한국어의 연구 방향이라든가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익섭** 제가 공부할 때보다 학회도 많아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편찬하실 강릉 사투리 사전이 하루 빨리 세상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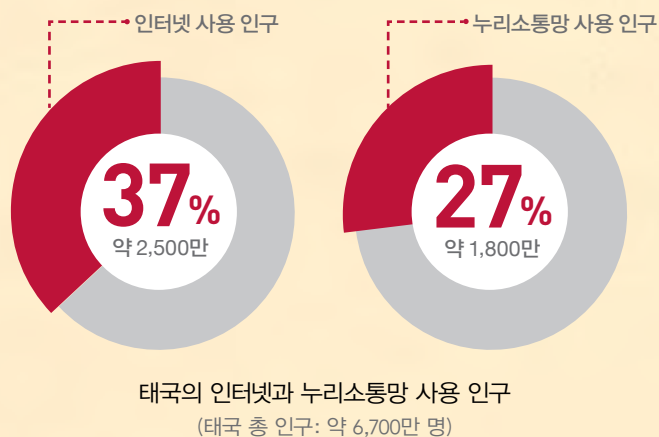
**태국** 만큼 독서열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는 나라도 드물다. 태국 방콕이 2013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도시로 선정되면서 선정 과정의 신뢰도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태국 출판인과 도서 판매자들의 연합회’에서 실시한 ‘2010년 태국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인은 책을 일 년에 평균 5권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하루 7줄, 연간 2권 정도로 집계되었으니 5년 새 미약하나마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40권, 싱가포르인 45권, 베트남인 60권, 일본인 50권 정도인 것을 보면 태국은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이런 태국이 세계 책의 도시로 선정되었으니, 그간 태국인의 저조한 독서열에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던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국보다 책을 많이 읽지 않던 태국인이 어떻게 해서 2011년에는 6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의 91.6%가 학업 이외의 책을 읽는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독서열 측정 기준에 있다. 태국 국가 통계청에서 독서 실태를 조사할 때는 모든 서적과 전자기기를 통한 읽기, 인터넷 뉴스와 시디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리소통망 사용도 포함한다. 독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인데 방콕이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진 만큼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독서하는 것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다.

태국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자국민의 독서열을 높일 수 있다. 독서 습관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는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에 서서히 뿌리내려 다음 세대로 전해지므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방콕세계 책의 도시’라는 명성이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란다.

## 세계 책의 도시와 태국인의 독서열

최원미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 간판에서 다문화의 다양성을 읽다

정선영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길을 지나다 스치는 간판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간판과 비슷한 점보다 낮은 부분이 많다. 다문화 사회의 독특한 색깔을 담아내는 도시로 유명한 멜버른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기본 바탕 아래 각국의 특성이 드러나는 간판이 오스트레일리아만의 특성으로 자리 잡아 이곳저곳에서 다채롭게 눈에 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간판은 별 의문이나 반론의 여지없이 주로 영어로 되어 있다. 다만 건국 과정에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의 영향이 컸음을 감안할 때 일상 언어는 영국 영어(Britain English)와 가깝지만 간판에 쓰이는 영어는 세계어로서 영어(World English)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환경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자리 잡기 이전 차이나타운이나 그리스 거리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다국 언어로 된 간판은 시간이 흐르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면서 점점 늘고 있다. 즉 영어가 아닌 외국어 표기는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민자, 유학생, 관광객 등)을 배려한 것으로, 외국어 표기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할 때 초기에는 보통 같은 민족이나 같은 나라 출신끼리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간판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경우, 중국계 이민자가 많이 모여 사는 박스힐 지역은 중국어와 영어 혼용 간판이 많고,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리치몬드나 스프링 베일은 베트남어 간판을, 코빅 지역은 레바논·터키 같은 중동 지역 언어 간판을 상대적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과 비교해서 네온사인이나 엘이디(LED) 간판을 자제하고 간판 본연의 기능만 하도록 아크릴 소재, 나무, 페인트 등을 간판에 많이 이용한다. 큰 쇼핑센터 안의 몇몇 간판을 제외하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판은 소박하다 못해 촌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곳의 간판 또한 이민자의 폭발적 증가, 세계화의 물결, 시간과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 발맞춰 여러 모습으로 변신 중이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 간판에 문화가 담긴 방글라데시

박성빈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방글라데시**는 벵골어를 사용하고 문자도 고유 문자를 사용한다. 방글라데시 간판은 벵골어로만 표기된 것, 벵골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된 것, 영어로만 표기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큰 도시에서는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과 벵골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된 간판이 많으며 중소 도시로 갈수록 벵골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많다. 깊은 시골 마을의 경우 문맹자가 많아 벵골어와 함께 그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판도 많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간판을 보면 그 간판이 사용된 상점이 누구를 주 고객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 또 간판으로 그 나라 문화와 분위기 등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여행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상주하는 외국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그럼에도 다카에는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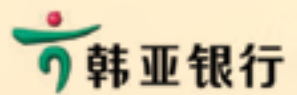
세계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꼽히지만 이곳에서도 영어가 거의 공용어가 되었다(공식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벵골어는 점점 파괴되고 있다. 스스로 언어를 지키고 정체성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 상표명은 중국에서 어떻게 변신할까?

윤기원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중국**에서 휴대전화로 유명한 '삼성'은 '싼싱(三星, san xing)'으로 통한다. 축구선수 박지성을 '피아오즈싱(朴智星, piao zhi xing)'이라고 한다. 한자어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다른 단어는 문제가 다르다. '코카콜라(coca cola)'는 중국어로 '可口可乐(ke kou ke le)'라 쓰고 '커커우커러'라고 읽는다.

**음역** 음역(音譯)은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한 번역이다. 그래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발음만 보고 무슨 뜻인지 추측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한국과 아시아라는 뜻의 '한아(韓亞)'는 우리말로 읽으면 '하나와 같다'.



韓亞銀行 / han ya yin hang / 한아인항

**음역과 의역의 조화**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는 한자의 음뿐만 아니라 뜻도 함께 사용한다. 한자의 뜻은 고유명사의 특징과 관련 없이 긍정적 이미지만 나타내기도 한다. 오리온 제과는 좋은 친구라는 회사명과 그에 걸맞은 마케팅이 중국에서 잘 통한 대표적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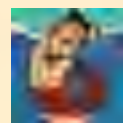


好麗友 / hao li you / 하오리요우

**의역** 의역(意譯)은 한자음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뜻으로만 원어를 번역한 것이다. 중국인은 '사과' 휴대전화를 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패드(ipad)'만큼은 영어를 그대로 쓴다.

苹果 → 사과 → 애플(Apple)

**독특한 번역어** '강남 스타' 일로 세계적 스타가 된 가수 싸이의 중국 정식 명칭은 '새 아저씨'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싸이'라고 하지만 방송 자막에서는 그를 '새 아저씨'라고 표기한다.



鳥叔 → 새+아저씨 → 가수 싸이(Psy)

## 독일의 인쇄술과 인쇄 문화

홍혜정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독일**의 인쇄술은 15세기까지 나무나 금속에 글자 또는 그림을 새겨 찍어내는 방식이었으며, 인쇄물은 대부분 흑색이었다. 중세까지는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필사해 책을 만들었으므로 책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렸다. 그래서 책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졌고, 지식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가 금속으로 이동식 활자를 만들어 이를 인쇄기로 찍어내는 기술을 발명한 뒤 짧은 시간에 책을 대량 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17세기 중반 신교와 구교가 독일에서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인쇄 문화도 퇴보했다. 18세기가 되면서 인쇄 문화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인쇄술에 능한 기술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목공 인쇄술이 다시 발달했고, 연판 인쇄술과 전기판을 이용하는 기술도 발명되었다. 21세기 들어 독일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들이 인쇄를 예술적인 표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인쇄술이 다시 중흥기를 맞고 있다.

# 독일



## 현장에서 만난 국어 선생님

# 말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최태림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국어 교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의 힘에 대해 자주 설명한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학생들은 말의 힘을 쉽게 믿지 않았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학생들과 진실을 가르쳐야 할 선생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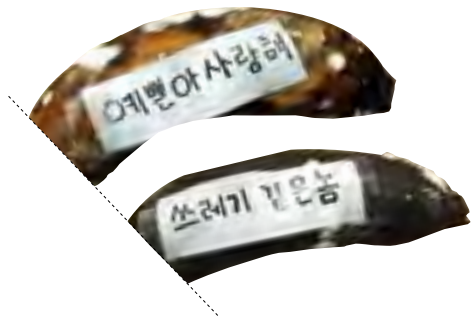
실험 재료로 적합한 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말의 힘을 믿기로 하고 주문을 걸었다. “내가 원하는 실험 재료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 재료로 선택한 것이 바나나이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가지에서 난 바나나 중에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두 개를 골랐다. 색깔뿐만 아니라 크기, 익은 정도, 심지어 껍질에 생긴 점의 개수도 비슷한 놈으로 고르고 또 골랐다. 그리고 ‘예쁜아 사랑해’와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적었다.

채광 조건이나 바람, 습도도 똑같이 맞추고 아침저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 적힌 바나나에는 나쁜 말을, ‘예쁜아 사랑해’가 적힌 바나나에는 사랑의 말을 해 주었다.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루는 ‘예쁜아 사랑해’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다음 날에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초를 재가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말을 하였다. 열흘 후 ‘쓰레기 같은 놈’이 적힌 바나나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썩어 있는 반면, ‘예쁜아 사랑해’가 적힌 바나나는 노란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실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한 학생이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도 썩어 들어갈 거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말이 아주 인상 깊었다.

실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보다도 나 자신이 더 놀랐다. 바나나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실험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실험 이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나누는 한마디 말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 한국어로 마음의

# 창을 열다

이은선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사

한국어 교사로서 처음 수업하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며 공부할 때만 해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첫 수업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수업 준비에 온 정신을 쏟았다. 어찌나 떨리고 긴장되던지. 첫인사로 어떤 말을 할지, 학생들과 어떻게 친해질지, 어떤 재미있는 말로 학생들을 웃게 할지 등을 교안에 뽁뽁이 적었다. 걱정 반 기대 반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첫 수업은 아쉽게도 준비한 것을 반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도 나오면 당황해서 더듬거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 지금은 수업하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 주고 싶은 내 마음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 의지로 하루하루 뿌듯하고 자부심도 커져 간다. 그날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대화하려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한국어 외에 한국 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이성 친구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사제지간 이상이 되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한국어 선생님’만이 아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나 누나처럼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중국, 미국, 카메룬 등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오른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내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올바른 언어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와 생활 등을 알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책에 있는 오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문구 등을 보면 고쳐 주고 싶은 것은 기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 또한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잘못 표현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 쓰는 표현은 꼭 고쳐 주게 된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에 늘 관심을 두게 되고, 한 번이라도 어설피고 알차지 않은 수업이 없게 하려고 노력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기에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느 수업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 학생들 덕분에 더 많이 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 학생들은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내 노력과 열정은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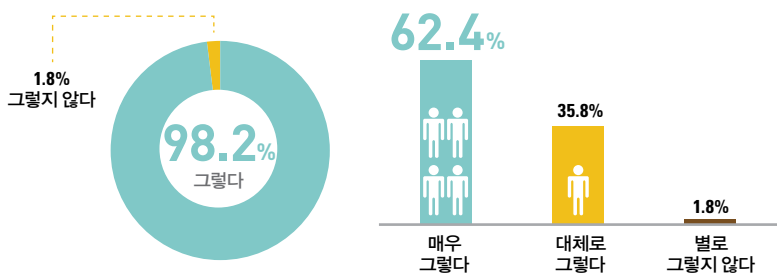






## 안녕!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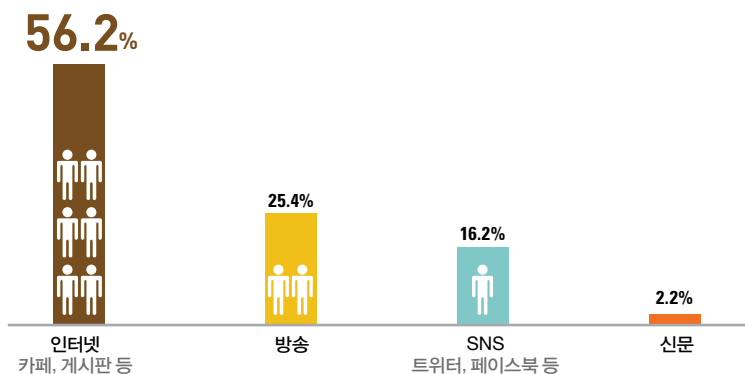
국민의 98.2% “한글, 한국어 사랑해!”



한글·한국어에 대한 자긍심 정도

한국어와 한글은 얼마나 사랑받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98.2%가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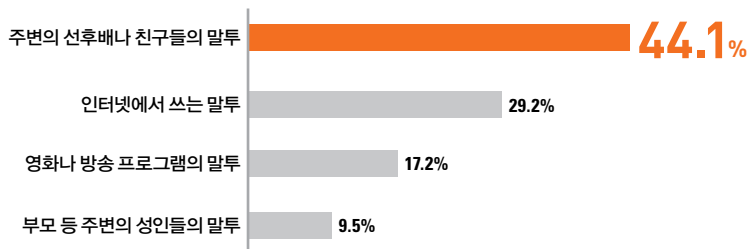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청소년은 인터넷 69.3%,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 21.3%, 방송 9%, 신문 0%로 꼽았다. 60세 이상은 인터넷 42.1%, 방송 43.5%, 누리소통망서비스 8.9%, 신문 5.6% 순으로 꼽았다.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평소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0.6%였다. 청소년의 4%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0세 이상은 51.9%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른은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말투’를 꼽은 반면, 청소년은 9.3%만이 영화나 방송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 한국어 사용자 수 세계 18위에서 13위로 상향

각종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적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 <http://www.ethnologue.com>)’가 종전 세계 18위로 제시해 왔던 한국어 사용자 수를 최근 세계 13위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13년 11월, 에스놀로그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사용자 수와 관련 정보가 오래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일부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정보를 수정해 줄 것을 에스놀로그 편집진에 요청했다. 이에 에스놀로그 측에서는 올해 4월 30일에 공개한 개정판에 이를 반영하였다. 참고로 ‘에스놀로그’ 2014년 개정판은 2010년 기준 세계 언어 정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대폭 상향 조정된 언어는 한국어와 터키어뿐이며, 다섯 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언어도 한국어와 터키어 둘뿐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한국어 사용자 수 순위를 공식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매겨 왔으며 내용도 각기 달라서 혼란이 컸으나, 이번 순위 조정을 계기로 혼란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6,640만 명에서 7,720만 명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남북한 인구를 1986년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 수가 현실에 맞지 않았으나, 개정판은 2010년을 전후한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 수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세계 언어 순위(5천만 명 이상 사용 언어)

개정 후(2014. 4. 30. 현재)			
순위	언어	사용 국가 수	사용자 수(백만 명)
1	중국어(Chinese)	33	1,197
2	스페인어(Spanish)	31	414
3	영어(English)	99	335
4	힌디어(Hindi)	4	260
5	아랍어(Arabic)	60	237
6	포르투갈어(Portuguese)	12	203
7	벵골어(Bengali)	4	193
8	러시아어(Russian)	16	167
9	일본어(Japanese)	3	122
10	자바어(Javanese)	3	84.3
11	란다어(Lahnda)	6	82.6
12	독일어(German)	18	78.2
13	한국어(Korean)	5	77.2
14	프랑스어(French)	51	75.0
15	텔루구어(Telugu)	2	74.0
16	마라티어(Marathi)	1	71.8
17	터키어(Turkish)	8	70.8
18	타밀어(Tamil)	6	68.8
19	베트남어(Vietnamese)	3	67.8
20	우르두어(Urdu)	6	63.9

국립국어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어 정보를 바르게 고치고 현행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국어가 국내외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생활속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공공언어 만들기, 방송언어 품격 높이기, 경어법 혼란 바로잡기, 건전한 청소년 언어 문화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삼아 2013년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을 시작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국어 관련 시민 단체, 일선 학교, 언론 기관 등과 손잡고 공공 기관과 방송사,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바르고 품격 있는 공공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시행해 왔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가정에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가정에서는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잊게 된다.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 상처를 드러내며 언어로 상대방을 할퀴는 경우도 있다. 언어폭력은 겉으로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그 피해는 외형적 상처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모두 아름다운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가족 간의 화목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 학교에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청소년의 언어에서 지적되는 것이 또래 집단의 욕설과 외계어 수준의 통신 언어이다. 청소년에게는 또래 문화가 있어서 은어나 유행어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양상을 잘 이해하고,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올바른 언어 예절을 익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사도 대상이 된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 하나하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여 품위 있는 말,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쌓일 것이다.

### 방송에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방송은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방송에서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뜻 모를 외국어나 낯선 용어들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인터넷, 통신상에서의 언어는 일상 언어에 깊이 침투해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누리소통망이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상에서의 소통이 시민들의 언어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선정적, 선동적, 폭력적 언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공 부문에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공공 기관에서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민과 소통하기 어려워지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책을 알려야 한다. 또 차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 대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목표와 10대 실천 사항

어른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맑아지는 청소년 언어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려와 위로의 가족 대화로 삶의 희망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언어, 어른들이 만듭니다.</li> <li>• 책 읽는 집 안 문화를 뿌리 내려 삶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인류의 지혜와 감성을 책 속에서 찾아갑니다.</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뜻도 모른 채 욕하는 버릇을 버립니다.</li> <li>• 부정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익힙니다. 나에게 상처가 될 말은 남에게도 쓰지 않습니다.</li> </ul>
품격 있고 올바른 말이 넘실대는 방송 인터넷 언어	
신문,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공격하는 말, 차별하는 말 대신 서로 보듬는 말을 퍼뜨립니다.</li> <li>• 국민언어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신문·방송을 만듭니다.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우리말을 파괴하지 않습니다.</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공간에서도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살핍니다.</li> <li>• 참되고 건강한 대화공동체를 만듭니다. 거짓, 과장, 저주, 욕설의 댓글을 쓰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li> </ul>
쉬운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책을 알립니다. 뜻 모를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씁니다.</li> <li>•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차별적·고압적 표현 대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합니다.</li> </ul>

## 미국 최초 한국어 특성화 학교 세종학교 개교

국립국어원, 세종학교에 한국어 교재 등 지원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미네소타 주 차터 스쿨(지울형 공립학교) 중 외국어 특화 학교로는 최초의 비한국계 학생 대상 한국어 특성화 학교(Korean immersion school)인 세종학교(Sejong Academy)가 지난 9월 2일 개교했다. 현재 등록 학생은 총 63명으로 한국인과 한국계 입양아, 일본인, 카렌족(미얀마 소수민족)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84%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밖이 16%를 차지한다.

세종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는 7년 전에 시작했으나 학교 부지, 전문적인 학교장, 학생 수 등 제반 사항이 갖춰진 최근야야 인기받았다. 현재 세종학교는 가톨릭 학교 부지를 빌려 쓰고 있으며 총 일곱 명의 교사 중 한국인은 다섯 명으로 대부분 교포 2세이다.

세종학교의 교육과정은 K-2학년은 40%, 3-6학년은 35%를 한국어로 진행하게 된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한국어, 한국문화, 수학, 과학, 탐구 학습 등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

학생의 언어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국외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한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반 외국인도 늘고 있다.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세종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태권도나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시아계의 경우 아시아 문화에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세종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 입양아 수가 전미 1위를 차지하는 미네소타 주의 특성상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세종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세종학교가 첫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서 등 자체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각 현장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

## 표준국어대사전 100% 활용하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산책하다가 보라색 작은 꽃을 보았다. 꽃 이름이 무얼까 궁금했는데 누군가 '얇은뱅이꽃'이라고 한다. 그 꽃 이름이 정말 '얇은뱅이꽃'이 맞는지 궁금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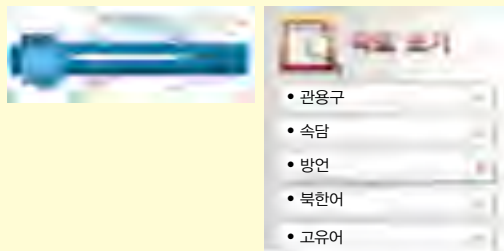


국어원 누리집의 찾기 마당 메뉴에 <표준국어대사전>이 있다. 검색창에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고 '찾기' 단추를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얇은뱅이꽃'을 입력하고 '찾기' 단추를 누르니 '제비꽃', '채송화', '민들레'의 방언이라고 한다. 제비꽃'을 검색해서 사진을 보니 아까 본 꽃이 '제비꽃'이 맞다.

###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일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일까? 이 속담을 찾으려고 '말'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없다. 이 속담은 '가다

라는 단어를 찾아야 나온다. 이럴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라는 표시 아래로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 아이콘이 줄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속담' 아이콘을 누르면 속담 검색 화면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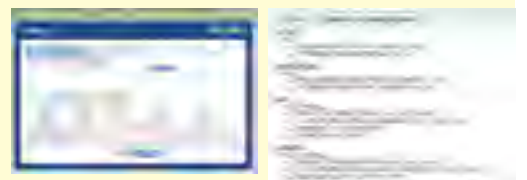


자음 아래에 있는 '표제어'와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말'을 검색창에 써 넣은 뒤 '찾기'를 누르면 '말'이 포함된 모든 속담이 나타난다. '따로 보기' 아래에 있는

'관용구' 아이콘을 누르면 관용구, '북한어' 아이콘을 누르면 북한어도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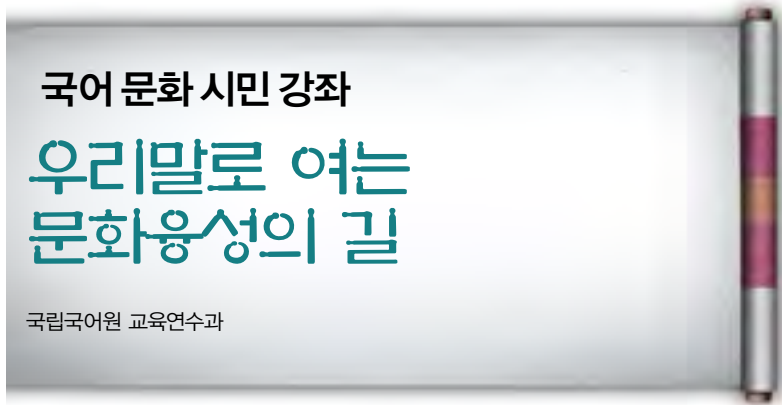
### '뜻풀이'나 '용례'도 검색할 수 있다

검색어 입력창 오른쪽에 있는 '자세히 찾기' 상자를 누르면 '자세히 찾기' 검색창이 뜬다. 기본 창은 '여러 겁 찾기(다중 검색)'인데, 첫 번째 칸에 조건을 '뜻풀이'로 설정하고 두 번째 칸을 '포함 문자'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떨어지는 소리'를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포함된 표제어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들은 '부사'이니 품사를 '부사'로 한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자세히 찾기'에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어원, 뜻풀이, 용례, 전문어 등 다양한 대상을 정하여 검색할 수 있고 '+'를 누르면 검색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국립국어원은 '우리말로 여는 문화용성의 길'을 주제로 국어 문화 시민 강좌를 연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리는 국어 문화 시민 강좌는 국립국어원이 직접 퇴근길 시민들 가까이로 다가가는 열린 강좌로 진행된다.

2014년 국어 문화 시민 강좌는 우리말과 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용성의 시대를 열어갈 방법을 모색하도록 구성했다.

### 국립국어원 '우리말로 여는 문화용성의 길' 국어 문화 시민 강좌 일정

- 때: 2014. 10. 20.(월) ~ 22.(수) 19:00~20:40

- 곳: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

매일 강연 전에 문화 공연이 함께합니다.

때	강사	주제
10월 20일	김주원(서울대학교)	세종의 소통 정신과 훈민정음
10월 21일	전성수(부천대학교)	한국 문화 소통의 열쇠말, 하브루타
10월 22일	고정욱(작가)	나를 구원한 국어와 문학

날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월 20일 김주원(서울대학교 교수), 세종의 소통 정신과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소통 정신과 과학 이론이 만나 만들어 낸 '훈민정음'을 통해 당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정치적 사상 속에 존재했던 '소통의 정신'에 대해 살펴본다. 세종과 훈민정음 사상은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명한 답을 줄 것이다.

#### 10월 21일 전성수(부천대학교 교수), 한국 문화 소통의 열쇠말, 하브루타

사람과 사람, 특히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의 대화와 토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공감을 매개로 즐겁고 자율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접근하며 '공감'의 가치와 의미를 역설할 예정이다.

#### 10월 22일 고정욱(작가), 나를 구원한 국어와 문학

《기방 들어주는 아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등 220여 권을 출간한 작가 고정욱의 삶은 장애인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국어와 문학'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저항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그의 삶에서 우리가 왜 우리말과 글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문화용성과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들어본다.

#### 공연 무대(10월 20-22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무대도 준비했다. 강연 전에 열리는 공연 무대는 국악과 양악 구분 없이 다양한 악기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채롭게 꾸며지도록 준비해 시민들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문화 시민 강좌를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우리말과 글이 우리 문화와 삶의 토대가 되고, 문화용성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식

## 정비된 외국어 이름으로 세계화를 노리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외래객 1,20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인 31%가 '식도락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뜨거운데도 한식 명칭이 제각기 다르게 번역되어 있거나 잘못 번역된 것이 적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한식의 올바른 명칭을 알려 주고,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바로 알리는 일이자 외국인을 배려하는 일이다.

국립국어원은 한식재단(농림축산식품부)과 함께 영·중·일 언어 전문가와 요리 전문가, 원어민으로 '한식명 번역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식명 200개를 선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식 표기를 정비하고, 영·중·일 번역 시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외국인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및 번역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는 '김밥', '비빔밥', '불고기', '김치'는 뜻을 번역하기보다 우리말 원음을 반영한 음역 표기를 영어, 일본어 번역 표준안으로 삼았다. '김치'의 중국어 번역안에 대해 '泡菜(파오차이)'와 '辛奇(신치)'가 논의되었으나 '泡菜(파오차이)'는 절임음식이라는 점에서, '辛奇(신치)'는 김치의 독특성을 반영하지만 중국 내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표준안 선정을 유보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및 번역 표준안'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에 알려 널리 활용하게 하고 한식재단을 통해 국내외 한식당에서 실질적으로 번역 표준안과 로마자 표기가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명, 문화 용어, 국어 관련 전문 용어 등 공공 부문의 용어 번역을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다.

## 다듬은 우리말 알아보기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 세고시/세꼬시 → 뼈째회
- 지리 → 맑은탕
- 쓰키다시 → 곁들이찬
- 골든타임 → 황금시간
- 싱크홀 → 함몰구멍/땅꺼짐
- 하이브리드카 → 복합동력차
- 램프 → 연결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에서 다듬은 말은 총 60개인데, 그중 국민의 국어 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만한 말을 알아보겠다.

먼저 우리 생활에 파고든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해 주체성 있는 국어 생활을 하는 데 보탬이 될 만한 예들을 살펴본다.

‘작은 생선을 손질하여 통째로 잘게 썰어 낸 생선회를 뜻하는 ‘세고시(せごし, ‘세꼬시)로 변형되

어 쓰이기도 함)’는 ‘뼈째회’로, ‘복어나 대구 등의 생선과 채소, 두부 따위를 넣어 맑게 끓인 국’을 이르는 말인 ‘지리(ちり)’는 ‘맑은탕’으로, ‘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으로 팔려 나오는 여러 음식을 뜻하는 ‘쓰키다시(つきだし, ‘쯔께다시, ‘찌개다시’ 등으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함)’는 ‘곁들이찬’으로 쓸 수 있다.

방송이나 신문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외국어도 우리말로 바꾸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응급 처치, 구출·구조, 화재 진압 등과 같은 사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시간을 가리킬 때 ‘골든타임(golden time)’ 대신 ‘황금 시간’을 쓰면 어떨까? ‘떨쩍하던 땅이 움푹 꺼져서 생긴 구멍 또는 그렇게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가리킬 때 ‘싱크홀(sinkhole)’ 대신 ‘함몰 구멍(구멍일 경우)이나 ‘땅꺼짐(현상일 경우)으로 써 보자.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처럼 두 가지 이

상의 구동 장치를 동시에 탑재하여 저공해와 연비 향상의 장점이 있는 차를 가리킬 때 ‘하이브리드카(hybrid car)’보다 ‘복합동력차’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입체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가리킬 때 ‘램프(ramp)’라는 말보다 ‘연결로’라고 쓰면 뜻이 쉽고 분명하게 와 닿는다.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점차 쓰임을 늘려 가는 외국어·외래어일수록 바로잡아 쓰기가 어렵지만, 우리말을 사랑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고치지 못할 것도 없다.

다듬은 말은 대개 새말이라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점차 익숙해진다. 한국 사람끼리 소통하는 데는 우리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우리말을 더 쉽고 윤택하게 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

###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이 메밀국수야, 모밀국수야?

‘메밀국수가 맞다.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온라인 국어 생활종합상담(온라인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 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이전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간단한 질문은 직접 전화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상담원이 답변해 준다. 🌈

- 가나다전화: 1599-9979  
- 운영 시간: 9:00~18:00
- 온라인가나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 응답’- ‘온라인가나다’
- 트위터: @urimal365

### 자 주 묻 는 맞 춤 법

#### ‘되’와 ‘돼’

문) “먹어도 되?”, “먹어도 돼?” 어떤 게 맞나요?

답) “먹어도 돼?”가 맞습니다. ‘돼’는 어간 ‘되’와 종결 어미 ‘-어’가 결합한 ‘되어’가 줄어든 형태입니다.

#### ‘률’과 ‘율’

문) ‘수익률’과 ‘수익율’ 중 맞는 표기는?

답) ‘수익률’이 바른 표기입니다. 앞말이 ‘-니’ 받침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율’로 표기하고, 그 밖에는 ‘률’로 표기합니다.

#### ‘아니오’와 ‘아니요’

문) ‘예’가 아닌 부정의 뜻으로 답할 때 ‘아니오’인가요, ‘아니요’인가요?

답) ‘아니요’입니다. 높이지 않는 말 ‘아니’에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붙여 ‘아니요’로 씁니다.

#### ‘데’와 ‘대’

문) “소리가 안 들리데?”, “소리가 안 들리대?” 어떤 게 맞나요?

답) “소리가 안 들리데?”가 맞습니다.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함을 나타내는 말은 ‘-데’입니다. 참고로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진수가 너를 보고 싶대.”처럼 씁니다.

#### ‘-으므로’와 ‘-음으로’

문)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함.”에서 ‘얻었으므로’가 맞나요? 아니면 ‘얻었음으로’가 맞나요?

답) ‘얻었으므로’가 맞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 상장을 수여하는 까닭이 되므로 연결 어미 ‘-(으)므로’를 씁니다. 🌈

##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 국립국어원 2014 국제학술대회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하고 국어 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2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올해에는 11월 26일 '자국어 능력 조사의 실태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63컨벤션센터 3층 주니퍼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자국민의 언어능력 조사나 문해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초청해 각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언어능력 실태 조사의 형태와 방식, 결과 활용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학술대회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0:00~11:30	개회식 기조 강연	존 사바티니(John Sabatini, 미국 ETS)
11:30~12:10	1부 발표	배리 골딩(Barry Golding, 호주 성인학습연합회)
13:20~15:20	2부 발표	귀룽성(Guo Longsheng, 중국 교육부 언어문자응용연구소) 노야마 히로시(Noyama Hiroshi,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정희원(Jung Heewon, 한국 국립국어원)
15:40~17:00	3부 발표	장피에르 장토(Jean-Pierre Jeanteau, 프랑스 국가비문해퇴치원) 앙겔라 루스테마이어(Angela Rustemeyer, 독일 독일성인교육협회)
17:20~18:30	종합 토론 및 폐회식	

###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가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새로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시청각실, 세미나실)과 국립중앙박물관(제강의실)에서 열린다.

올해의 전국학술대회에서는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개선 운동'이라는 주제로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자 헌신한 선학들의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언어생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 학술대회 일정

시간	내용	주제
9:30~12:10	기조 강연 1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송철의)
	기조 강연 2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우한용)
13:30~17:10	분과별 발표	1분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과 실천 2분과: 국어문화 환경과 국문학의 생태학 3분과: 언어문화개선 교육의 현황과 전망
17:20~17:45	종합 토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언어생태학적 접근 방향

##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제막식 열려 세종대왕상 옆 세종로공원에 기념탑 우뚝 서

####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올해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우뚝 섰다. 한글학회와 서울시는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말 우리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 선열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길이 전하고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을 세우고 역사적인 제막식을 했다.

한글학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막식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는 '조선어학회'의 마지막 직원이었던 이선희 님을 비롯하여, 이정(이인 선생 아드님), 신광순(신현모 선생 아드님), 장세경(장지영 선생 아드님), 김용규(김양수 선생 아드님), 안경홍(안호상 선생 아드님), 박양덕(박원삼 선생 따님), 김혜성(김중



▲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제막 모습

철 선생 따님) 님 등 조선어학회 선열 후손 3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해주었다.

특히 이종수(재단법인 한글학회 감사) 님을 비롯한 고루 이극로 선생 후손과 고루 이극로 박사 기념사업회 회원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극로 선생은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맡아 조선어사전 편찬을 주도하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한글에 대한 역사적 공간인 세종로 일대에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민족정신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뜻 깊다. 한글 교육관 등 진행 중인 한글 관련 사

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글학회 김종택 회장은 "조선어학회 애국 선열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는 현대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다."라며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투쟁기'를 봉독하였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어가 파괴되고 비속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늘 세워진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은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기념탑 제막은 김종택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날 참석한 내빈과 조선어학회 선열 유족이 함께하였다. 10미터 높이 청동과 오석 재질로 이뤄진 기념탑에는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구금돼 탄압을 받은 서른세 분과 조선어학회의 운영, 큰사전 편찬 사업에 공헌한 스물네 분 이름,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투쟁기, 옥중 고문기 등이 새겨져 있다.

## 568돌 한글날, 한글문화큰잔치

###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

10월 7일~10월 10일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민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글문화큰잔치'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세종대왕님과 함께 한글을 누리고,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 내용	때	곳
한글 꾸밈전	2014. 10. 7.(화)~10. 9.(목)	광화문 광장
아름다운 한글전	2014. 10. 7.(화)~10. 9.(목)	광화문 광장
여기는 한글 마을	2014. 10. 8.(수)~10. 9.(목)	광화문 광장
한글로 피어나다	2014. 10. 9.(목) 15:00~15:30	광화문 북측 광장 주무대
제5회 휘호경진대회	2014. 10. 9일(목) 9:00~17:00	광화문 광장
도전! 황금복을 올려라	2014. 10. 9.(목) 18:00~22:00	광화문 북측 광장 주무대
제15회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	2014. 10. 10.(금) 14:00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 국립한글박물관 10월 8일 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립한글박물관(관장 문영호)이 10월 8일 개관식을 하고 한글날인 9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는 전시와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이다. 한글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과학·산업·예술 등 여러 분야와 소통해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가 대표 콘텐츠로 한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8월 준공하였다. 건축 연면적 1만 1,322제곱미터로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과 문화행사·전시·교육 등이 가능한 야외 잔디마당과 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한글누리(도서관)가 마련되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아름누리(한글 문화상품점·잡집), 3층에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를 위한 한글놀이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배움터 등이 들어섰다.

박물관 관람은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화·목·금요일은 09:00~18:00, 수·토요일은 09:00~21:00(야간 개장), 일요일·공휴일은 09:00~19:00이다. 한글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02-2124-6200

###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

발행처 국립국어원 | 발행인 민현식 | 발행일 2014년 10월 8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 누리집 <http://www.korean.go.kr>  
대표 전화 02-2669-9775 | 가나다전화(국어생활종합상담실) 1599-9979  
기획 국립국어원 | 제작 디자인 여백 02-2279-9631

이 간행물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의 한글날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날, 축하합니다!

**이해련** 한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지켜 줄게. 사랑해.

**신동은** 한글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한자를 배웠겠지. 머리 아픈 일이야. 바른 표기에 관한 글 계속 공유하기 할게.

**박소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문자를 가진 이 땅에 태어나 자랐다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읽고 쓰고 그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한글과 한국어, 모두 사랑해요!

**양지애** 한국에 뿌리를 가지면서도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면서 자랐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한글과 우리말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지내고 싶어요.

**이수진** 한글아, 네 덕분에 내가 지금 너한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다! 고마워, 한글아!

**박성수** 한자로도 영어로도 표현하기 쉽지 않은 우리만이 표현 가능한 글. '한글'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이선영** 예쁘고 아기자기한 우리말만큼이나 매무새가 고운 우리 한글, 고마워요. 말과 글과 정신이 하나이듯 예쁜 말, 고운 글, 너그러운 마음이 이 땅에 영원하길! 한글날, 축하해요!

**유수완** 한글, 하나 ㄱ-ㄴ. 하나하나 풀어 놓은 것도 한 글자씩 뭉쳐 놓은 것도 고운 한글아! 고맙다~

**박정은** 2~3시간만 배우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두 읽을 수 있는 글, 이 세상에 너 같은 글자가 없다! 가르칠 때마다 자랑스러워! 고맙다!

**김연신**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을 기리기 위해 법으로 정하였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 주면 좋겠네요.

**노마 히데키** 일본어권에서 보면 많은 분이 한글이라는 문자와 그 역사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문자란 무엇인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한글날입니다.

※ 윗글은 국립국어원 페이스북에 한글날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글에서 뽑은 것입니다.